

윤석열 대통령, 집중호우 피해지역 현장 점검

윤석열대통령, 수해지역 주민 찾아 위로..'예산 충분히 투입해 일상복귀 지원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8일 오후 비가 내리는 가운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공주시 탄천면 피해지역을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대통령은 먼저 공주 탄천면 대학리의 농작물 침수 현장을 방문했다. 대통령이 방문한 비닐하우스는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내부의 작물은 앞서까지 토사로 뒤덮여 있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늘게 출하하려던 사과대추가 피해를 입었다며 대통령에게 현장 상황을 보고했고, 김천기 시장은 마을에 배수펌프가 없어 인근 금강물이 작물을 덮쳤으며 배수펌프 설치가 필요하다고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또 현장에 동행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작물들이 싹틔어나라 보험처리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안타까운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통령은 "배수펌프는 물론이고, 농작물 피해 보상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정 장관에게 주문했다.

대통령은 현장에서 복구를 지원하고 있는 32사단 장병들을 만나 어깨를 두드리며 "수고가 많다"고 격려했고, 장병들은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은 바로 이어서 인근 축사를 방문해 수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했다. 축사 주인은 "축사에 3m가 넘게 물이 차올라 소 33마리 중 22마리가 사라졌다"며 "특히 소는 물이 차올라도 주인이 데리고 나가지 않는 한 도망치지 않는데도 피해가 컸다"고 눈시울을 붉혔고, 이에 대통령은 피해 주민의 손을 잡고 위로와 지원을 약속했다.

현장에서 대통령을 만난 또 다른 주민은 눈물을 흘리며 지원을 호소하자 대통령은 "예산을 충분히 투입해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겠다. 걱정마시라"고 주민을 위로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축사 복구를 지원하던 32사단 김관수 사단장으로부터 68개 지역에 1,300명 장병을 투입해서 재난 극복을 돕고 있다고 상황을 보고받고 "분노 넘새가 나는데도 장병들이 고생이 많다. 우리 장병들 밖에 없다"며 이들을 격려했다.



▲ 7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지역 현장점검(충남 논산 지역)을 했다.

한편, 대통령의 방문과 위로에 축사 주인은 빨로 뒤덮인 현장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기적도 있었다며, 수해로 힘이 빠진 어미소가 출산을 힘들어하자 장정 4명이 출산을 도와 송아지가 태어날 수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축사를 떠나기 전 직접 어미소와 송아지에게 여물을 주고 우리 장병들에게 "수고하시라, 화이팅!"이라고 했고 장병들은 "충성"이라고 경례하며 감사를 표했다.

축사를 나온 대통령은 인근 대학2리 마을회관에서 주민 20여 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대통령을 만난 마을 이장은 "마을 지대가 낮아서 상습적으로 침수가 된다"며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고 하천 정비도 해주셔야 주민들이 편하겠다"고 지원을 요청했고 대통령은 "준설도 하고 배수 펌프시설도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다행히도 주택은 많이 파손되지 않은 것 같은데 농작물 피해가 커서 안타깝다. 오늘 충남지사, 농림부 장관이 같이 왔는데 직접 상황을 봤으니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정부가 원상복구를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주민들을 위로했다.

특히, 대통령이 "농산물 피해 현황을 살펴서 가을추수가 정상적인 때와 다를 정도로 지원할 수 있게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하자 주민들은 입을 모아 감사를 표하며 박수를 보냈다.

대통령은 주민들을 위로한데 더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대비책 마련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기존 배수장 용량은 평균 강수량을 기준으로 설계했는데 이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극단적인 눈, 비, 가뭄이 많아져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1년에 내릴 비가 사흘

동안 내리는 이런 현상이 일반화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하천 정비계획을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기후변화가 태평양도서국 등 다른 나라 일이 아니라 우리도 직접 영향을 받고 있다"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현장을 떠나며 "어제 방문했던 경북은 인명피해가 크고 충청과 전북지역은 농작물 피해가 커 안타깝다.

벼농사는 물이 빠지면 관장을 수 있는데 콩이나 깨 같은 작물이 많이 유실된 것 같다"며 현장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오늘 현장에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하여 김태흠 충남지사, 최원철 공주시장 및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했다.

최광수/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 지역에선 미증유 재해사태...신종 재난

6만 구독경제 포인트 구매 시 추가 4만 포인트 지급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와 더불어 향후 폭우 대비와 피해수습에 만전 기할 것

이철우 도지사는 17일 오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집중호우 대책 점검회의'에 참석해 경북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와 관련해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산사태가 아닌 지숙적이고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토사재해로 규정하고 새로운 재난대응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에 지역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다. 지역에선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 본 적 없는 미증유의 재해 사태이다"라고 언급했다.

또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4천958개소에 달하는 산사태취약지역에서 발생한 것은 한 곳뿐이다. 10곳 중 9곳이 관리지역 밖에서 발생했다"며 "수백 년 동안 살던 마을에 발생한 수해피해가 발생한 만큼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 관리방식을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재검토할 때가 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5일부터 지금까

지 경북 북부지역에 900mm 가까운 비가 내렸다. 이는 1973년 이래 50년 동안 대구경북 장마기간 평균 누적 강수량(292.2mm)의 3배가 넘는 수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철우 도지사는 "단기간의 기록적인 폭우와 평균을 훨씬 넘어서는 폭우가 지속돼 예측하기 힘든 신종 재난이 발생한 만큼 중앙정부와 함께 합동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새로운 대책을 모색할 시점이다"라며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선제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고려하고 있어서 지역에서는 향후 폭우대비와 피해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5일 예방적 주민대피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공무원·경찰·의용소방대 945명과 시군의 이·통장 7095명을 동원해 15일에는 3073명, 16일에는 2622명을 긴급 대피시켰다.

윤근수/기자



'소비자시민모임'이 주관하는 '2022 우수축산물브랜드' 선정



봉화 한약우
이 약초 먹고 자라는 명품한우

봉화 한약우는 우수혈통으로 선별한 한우에

자연의 기를 머금은 한약재를 첨가한 사료로 사육한 명품 한우고기입니다.

한우의 부드러운 감칠맛과 함께 각종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이 풍부한 참살이 건강식품으로, 청정지역 봉화군에서 무항균, 무항생제, 무농약의 생산조건으로 품질인증 받은 국내 고급브랜드 한우입니다.

봉화 한약우 프라자



봉화군

새로운 봉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 경기도체육분야 활성화위한 의미있는 한걸음 이끌다!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더불어민주당, 의정부2) 위원장은 지난 12일 제370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가결된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경기도 체육분야의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그동안 경기도 시공사(GH)가 위탁운영하던 ▲ 경기도사격태마파크 ▲ 경기도유도회관 ▲ 경기도검도회관 ▲ 경기도체유회관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번 본회의 통과를 통해 향후 도내 전문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 효율성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일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경기도체육회 이관을 시작으로 이번 도립체육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까지 체육분야 활성화를 위한 의미있는 성과 뒤에는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 경기도, 경기도체육회 등 관계자들의 공감, 성찰,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지난해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된 경기도체육회 관련 위탁업무 이관, 조직 활성화, 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활성화 등의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고, 혁신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혁신발전TF’를 제안했다.”면서 “올해 3월부터 총 3회에 걸쳐 경기체육 발전을 위한 ▲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 도립체육시설 활용 제고 ▲ 체육회 조직 활성화 ▲ 민선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 ▲ 체육회 북부본원 설치 ▲ 체육단체 협력 등 주요 6대 논의과제를 선정하여 심도있고 현실가능한 세부사항들을 논의한 결과가 하나씩 결실을 맺고 있어 소관 위원장으로서 감사하고 뿌듯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이 위원장은 “그동안 도내 체육분야에서 겪은 일련의 과정은 경기체육 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성찰(省察)의 시



간’이었으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만큼 성숙해졌다.”고 밝히며,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이관에 이어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의 본회의 통과가 끝이 아니라 경기체육 미래100년을 위한 변화와 혁신, 협력의 시작임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도내 체육분야 활성화를 위한 정책발굴, 예산확대 등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만식기자

이광일 전남도의원, 여수 수해 현장 곳곳 긴급방문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1)은 최근 지속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여수지역 수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대책 점검 회의와 피해복구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전국에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많은 사상자가 속출하는 등 전국적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여수지역에도 토사가 흘러내리거나 도로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돌산읍에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누적 강수량이 259.5mm로 기록적인 수치를 보였고 당분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광일 의원은 지난 16일 여수시 돌산을 평사리에 위치한 하안연꽃요양원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여수시 관계 공무원 및 직원·군인들과 함께 입소 여신 대

피와 더 이상 토사가 유입되지 않도록 복구작업을 함께했다.

또한 17일은 여수 돌산읍 울림리 대울마을 입구 차도에 토사가 쏠려 내려오는 사고가 발생해 여수시청 도로과 직원과 함께 차량통제 작업에 나섰으며, 18일은 돌산노인전문요양원을 방문하여 토사유입 방지에 대한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광일 의원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현장 긴급복구와 추가 피해방지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선제적으로 동원해야 한다”며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사태 취약지역 및 상습 침수도로를 집중 예찰하고 피해복구 문제에 대해 항구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및 여수시 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고 밝혔다.

박종배기자



경북도의회 민주적 문제해결 향상, 청소년으로부터 시작한다.

도내 61개 학교 3,700여명 참여, 참여한 학생들 92%가 만족

경상북도의회가 운영 중인 청소년의회 교실이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우는 민주주의 체험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은 2014년에 처음 도입하여 그 동안 도내 61개 학교, 3,700여명이 체험했으며, 미래의 유권자인 도내 초·중·고등학생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의 의정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도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의회민주주의 체험을 위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의회공간을 적극 개방하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라는 경상북도의회 의 슬로건에도 부합되고, 학생들의 의회 민주주의 교육수준을 한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되고 2년 6개월 동안 운영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하반기(12대의회)부터 재개하면서 체험 위주 프로그램으로 대폭 개편했다. 학생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바탕으로 학사일정, 원거리 이동(안전) 등 교육청 및 해당 학교의 의견을 반영하여 체험시간을 조정(하루 종일 → 오후 2시간)하고, 학생들의 발언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3분 자유발언으로 조정하고, 조례안 및 건의안 등 안건을 추가했다.

지역 도의원이 참여하여 도의회(의원 역할, 본회의 및 상임위 운영)를 안내하고, 인생 선배로서 덕담과 함께 수요증 수여 등을 통해 의회를 홍보하고 학생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또한, 학교·사회문제에 대하여 학생들이 깊게 고민하여 스스로 안건을 작성하고, 3분 자유발언,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며,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전자투표로 표결에 직접 참여하게 하는 등 학교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

여 프로그램을 대폭 개편함으로써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좋은 경험을 하고가는 것 같아서 좋고, 친구들이 발표하는 것을 보고 많이 배운 것 같다”

“장래희망에 대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

“의회의 기능을 알 수 있고 직접참여를 하여 몸소 느끼는 체험을 하여 뿌듯했다.”

“새로운 경험이었고, 이런분야의 일을 가지는 진로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됐다.”

“살면서 경험하기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되어 영광이었고,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오고 싶다고 느꼈다. 등진행순서는 개회식 식전 순서로 입교식을 통해 지역 도의원 환영사와 단체기념 촬영을 한 후, 학생 의장의 개회사와 개의 선언으로 도의회 본회의 개회식과 똑같이 시작된다.

이어서 학생 의원 2명의 3분 자유발언, 안건으로 상정된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한 후, 학생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2건을 상정하여 대표 발의한 학생 의원 2명의 제안설명을 듣고, 2명의 학생 의원의 찬성토론과 2명의 학생 의원의 반대토론을 거쳐 전자투표로 표결하여 가결 또는 부결로 조례안을 처리한다.

이어서 건의안 2건을 상정하여 마찬가지로 학생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자투표로 표결하여 처리하는 등 학생 의장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학생 의원의 발언을 거쳐 안건을 처리한 후에 학생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폐회 후에는 지역 도의원이 참여한 모든 학생들에게 수요증을 수여한다.

금년 상반기(4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는 경주 황남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철곡 왜관초등학교, 구미 형곡초등학교, 경산 성암초등학교, 경주여자중학교 등 10개 학교, 270명이 체험활동에 참여

소감 장래희망에 대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

“살면서 경험하기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되어 영광이었고,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오고 싶다고 느꼈다. 등진행순서는 개회식 식전 순서로 입교식을 통해 지역 도의원 환영사와 단체기념 촬영을 한 후, 학생 의장의 개회사와 개의 선언으로 도의회 본회의 개회식과 똑같이 시작된다.

이어서 학생 의원 2명의 3분 자유발언, 안건으로 상정된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한 후, 학생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2건을 상정하여 대표 발의한 학생 의원 2명의 제안설명을 듣고, 2명의 학생 의원의 찬성토론과 2명의 학생 의원의 반대토론을 거쳐 전자투표로 표결하여 가결 또는 부결로 조례안을 처리한다.

이어서 건의안 2건을 상정하여 마찬가지로 학생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자투표로 표결하여 처리하는 등 학생 의장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학생 의원의 발언을 거쳐 안건을 처리한 후에 학생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폐회 후에는 지역 도의원이 참여한 모든 학생들에게 수요증을 수여한다.

금년 상반기(4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는 경주 황남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철곡 왜관초등학교, 구미 형곡초등학교, 경산 성암초등학교, 경주여자중학교 등 10개 학교, 270명이 체험활동에 참여

윤근수기자

오산시의회 성길용 의장, 집중호우 대비 오산천 점검

오산시의회 성길용 의장은 지난 18일 전국 일대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오산천에 현장방문했다.

지난 13일부터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는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야기했고, 이에 따라 성길용 의장은 침수 피해에 사전 대응을 위해 오산천 산책로, 지하차도 등 현장점검에 나섰다.

성길용 의장은 현장 방문 중 오산천의 수위 변동상태와 주변 환경을 확인했고, 침수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미리 점검하고 비상대책 및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성길용 의장은 “오산시의회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오산시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산천 산책로, 하천 등 침수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미리 식별하여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시민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의회는 오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예방조치를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양시현기자



충남도의회, 다양한 산림서비스 제공으로 시너지효과 기대

충남도의회가 수목유전자원의 보존·자원화를 통해 다양한 산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하고자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목원·지방정원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용 시간 ▲휴일 관련 규정 ▲이용료 및 감면 ▲이용료의 반환 ▲이용료 및 입장 제한 ▲편의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정 의원은 “안면도 수목원은 산과

바다가 인접해 관광명소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이용객 수가 30만 명을 넘었다”며 “지방정원과 수목원, 자연휴양림이 연계해 다양한 산림서비스가 제공된다면 관광 산업에 큰 시너지 효과를 불러와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최정근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좌: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경치부:대선 (112)	문화부:대선 (116)
광고국:1899.9659	사회부:대선 (113)	부동산부:대선 (117)
	경제부:대선 (114)	오피니언부:대선 (118)
	스포츠부:대선 (115)	지방부:대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키야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 “목감천 저류지 설치사업 신속히 추진해야”

17일 목감천 현장 방문... 목감천 하천정비사업 추진사항 점검



▲ 박승원 광명시장은 17일 오후 목감천 하천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 오른쪽(민방위복 착용한 사람)부터 서홍원 한강유역환경청장,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장, 최민 경기도의원, 시의원 등 광명시의원, 임오경 국회의원, 이형덕 광명시의원 박승원 광명시장

박승원 광명시장이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목감천 저류지 설치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17일 오후 서홍원 한강유역환경청장, 임오경 국회의원,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장, 최민 경기도의원, 시의원 등과 목감천 저류지 예정지 현장을 방문해 목감천 하천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소와 제방 7개소, 교량 재가설 10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3천800억여 원이다. 실시설계 결과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보다 1천억 원가량 증가해 현재 기재부에서 사업 적정성을 재검토 중이다.

박 시장은 “작년에 1시간만 비가 더 내렸어도 목감천 전체가 범람했을 것”이라며 “목감천의 산습적인 범람으로 인근 주민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목감천 저류지 설치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와 한강유역환경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서홍원 청장은 “기재부, 광명시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1시간 최대 강수량 109.5mm, 누적 강수량 503mm에 달하는 집중호우로 식목로 인근 제방과 개명교 등 일부 지역에서 범람해 수해민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봤다. 시는 하류 양안에 1~1.8m 높이의 홍수 방어벽과 개명교, 개성교에 교량 차수판을 설치해 홍수를 방어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고양시, 신도시정비과 신설...1기 신도시 재정비 적극 지원

고양특례시는 지난 3일 조직개편으로 신도시정비과를 신설했다. 시는 신도시 정비과를 중심으로 주민맞춤형 1기 신도시 재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고양시는 18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시의 업무 방향성을 제시했다. 현재 고양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수립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총괄기획가·주민참여단 운영 ▲주민맞춤형 교육 지원 등 노후도시를 재정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시는 관내 노후도시 지역 32.3km²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2035 고양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용역은 내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주민을 위한 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 컨설팅'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6월 30일까지 모집한 사업에 15

개 구역 35개 단지가 신청했다. 유형별로는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5개 구역, 대규모 복합 통합정비 3개 구역, 단독 정비 및 연립주택 7개 구역이 사업에 신청했다. 시는 이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지원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지원 단지를 선정 후 내년 4월까지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 컨설팅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민 대상 교육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발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주민이 관련된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비·재건축 특별 강의를 운영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신속한 주민 맞춤형 재정비 사업이 가능하도록 고양시가 아낌없는 행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일산신도시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의 전국적인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반도체 혁신네트워크’ 출범...34개 산학연 관 참여해 반도체기업육성

염태영 경제부지사 “경기도 반도체 산업의 거버넌스 되도록 추진할 것”

경기도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주관으로 34개 산·학·연·관 기관이 참여해 경기도 주력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경기반도체 혁신네트워크’가 출범했다. 경기도는 18일 경기반도체 혁신네트워크 업무협약식·발대식에서 ‘경기반도체 혁신네트워크’ 업무협약식과 발대식을 개최했다. 경기반도체 혁신네트워크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이상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기초지자체 7곳(용인.화성.성남.안산.평택.이천.안성), 중앙기관 2곳(경기남부경찰청, 평택직할세관), 민간협단체 3곳(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패리스산업협회, 한국PCB&반도체패키징산업협회), 지역혁신유관기관 12곳(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용인시산업진흥원, 화성산업진흥원, 성남산업진흥원, 평택산업진흥원, 코트라경기지원단, 기술보증기금 경기본부, 중진공 경기지역본부, 중진공 경기동부지부, 중진공 경기남부지부), 대학 4곳(한국공학대학교, 한양대학교 ERICA, 가천대학교, 국제대학교), 연구소 4곳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 등 총 34개 기관이 참여한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경기반도체 혁신네트워크’ 협업체를 운영하며 반도체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한다. 또 반도체 중소벤처기업의 현장애로를

발굴하고 인력양성에 공동 대응하는 등 도내 반도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협업하기로 했다. 협업체는 경과원 ‘반도체기업 종합지원센터’ 내에 사무국을 두며, 센터는 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경기도는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카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으로 혁신네트워크가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거버넌스가 되도록 하겠다”며 “도내 반도체 기업이 마음놓고 투자·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반도체 고급·전문 인력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정명근 화성시장, 호우 취약 지역 현장점검 실시

정명근 화성시장이 17일 집중호우 피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침수위험 지하차도가 있는 향남읍 상신리 금곡지하차도를 시작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인 정남면 백리로 이어졌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계속된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점검에 앞서 정 시장은 금일 9시 상황실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상황보고 및 조치결과 점검과 17·18일 예비특보 발령에 따른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관련 국소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관계 공무원들에게 “산사태, 급경사지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과할 정도로 예찰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피해사례가 접수된 경우 선 조치 후 보고하고, 특히 위험 지하차도는 호우시 담당자가 1대1로 현장대기해 대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시현/기자

경기상상캠퍼스, 다같이 더 많은 가치를 나누는 '다(多)가치 상상' 지역 기관 연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모 진행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경기상상캠퍼스는 문화취약계층 지역 기관 연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다(多)가치 상상'의 공모 접수를 7월 18일부터 8월 7일 17시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가치 상상'은 상상캠퍼스를 직접 방문하기 어렵거나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필요로 하는 경기도 내 기관을 연계 및 지원하여 지역 사회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고자 기획한 지원사업이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문화예술교육 기회가 감소했던 지역 기관과의 연계를 확대하여 도민들과 함께 많은(多) 가치를 공유하고 다같이 상상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했다.

공모 방식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단체가 경기도 내 복지시설 및 문화예술교육 접근성이 취약한 도민 이용 시설(2개 기관 이상)을 직접 섭외하여 공모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심 숲에 위치한 문화예술 복합문화공간인 경기상상캠퍼스를 경기도 곳곳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주제는 '숲과 예술'로 진행된다. 교육 장소는 경기상상캠퍼스 내 공간을 활용하는 '찾아오는', 기관 내 교육 공간을 활용하는 '찾아가는', 두 공간을 모두 활용하는 '찾아오는+찾아가는' 3가지 중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선정 단계는 9월부터 11월까지 '숲과 예술'을 주제로 연계 지역 기관 및 경기상상캠퍼스 공간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 접수는 7월 18일부터 8월 7일 17시까지 진행되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참가 자격은 문화예술 콘텐츠·교육 분야의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경기도 소재 단체, 최근 3년 이내의 활동 실적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단체 등이다. 서류 및 인터뷰 심의를 거쳐 5개 단계 내외를 선정하여 단체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및 경기상상캠퍼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만식/기자

용인특례시, 15일 청년정책네트워크 제4기 출범 킷오프미팅



용인특례시가 지난 15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제4기 용인시 청년정책네트워크 킷오프미팅 사전교육' 행사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공개모집을 거쳐 대학(원)생, 자영업, 직장인, 취업준비생 등 55명의 제4기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을 선정했다. 킷오프미팅에서는 활동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퍼실리테이션(문제해결을 위한 소통과 협력) 교육을

하는 한편, 6개 분과를 배정하고 위원장을 선출했다. 청년정책네트워크 4기는 이달 말에 발대식을 열고 위촉장을 수여한 뒤 본격적인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날 선출된 임정선 위원장은 “활발한 활동을 통해 제 4기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청년정책네트워크에 대

한 이해도를 높이고 활동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킷오프미팅 사전교육을 개최했다”며 “원활한 활동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 청년들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실효성 높은 청년정책 제안 및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활동이다. 최만식/기자



경북 화장품기업, 미국 최대 미용전시회서 1천 185만 달러 수출상담

경상북도 공동관 구성, 세계 3대 미용전시회 미국 코스모프로프 참가

경북도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2023 북미 라스베이거스 코스모프로프(Cosmoprof North America Las Vegas)'에 참가해 총 306건의 수출상담을 통해 1천185만 달러의 상담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라스베이거스 코스모프로프 전시회는 세계 3대 미용 전문전시회로 화장품 소재 및 완성품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유통사 및 온라인 플랫폼에 이르는 제품 공급망 전반을 구성하는 기업 대부분이 참여하는 중요 행사다.

올해 총 40개국 1천415개사가 참가했으며 약 4만 명의 참가객들이 전시회를 찾았다.

장품, 핸드크림 등 전통적 미용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과 함께 입술 보호기능 립스틱, 피부 두피 검사기, 사워필터 등 독특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기업 등 총 10개사로 구성됐다.

경산에 소재한 '허니스트'는 글로벌 호텔 순위 3위 규모(2022년 기준)인 현지 호텔에서 약 250만 달러 규모의 육식용 편의용품 개발과 납품을 요청받았다.

높아진 한국 미용제품의 위상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도 높은 상품성을 보유한 도내 기업들에게 애타투어 입점을 제안하기도 했다.

'코리아비엔씨'는 세계 최대 온라인몰인 아마존(Amazon)에서, '파워플레이어'는 세계 최대 건강 보조제품 플랫폼인 아이허브(iHerb)의 입점제안을 받고 구체적인



조건 등에 대한 현장상담을 진행했다.

이달의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올해 세계 3대 화장품-미용 박람회 최초로 경상북도 공동관을 구성해 참가했다"면서 "한류문화가 불러온 긍정적 인식으로 미국 등 선진시장을 도내 우수 미용

제품으로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만큼 앞으로도 연구개발과 마케팅 등 관련 지원을 더욱 강화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LX한국국토정보공사공간 정보업무 설명회 개최

LX플랫폼 기반 서비스 사례 및 스마트 행정 구현



LX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난 7월 17일 영양군 공간정보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간정보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영양군은 최근 '영양 자작나무숲 관광지 명품화' 등의 산림자원 활용 정책 사업 및 '삼지수변공원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분야 군민 정책 제안 공모'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LX대구경북은 영양군 공간정보정책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트윈 기반 공원 관리 서비스', '산지전용 허가 지원

및 이력 관리' 등의 LX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지역 현안 해결 사례를 설명했다.

설명회 후 공간정보 기반 정책 지원을 위한 LX플랫폼 활용 방안 및 향후 영양군 공간정보업무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권정순 지사장(LX대구경북 청송영양지사장)은 "영양군과 LX대구경북이 공간정보 업무들을 통한 지역 현안 해결에 뜻을 함께한 첫 자리라 의미가 깊다"면서 "앞으로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정책에 발맞춰 영양군의 스마트행정 실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반복되는 과수 서리피해 선제대응 나선다!

- 과수 미세살수장치 지원사업 수요조사

- 윤경희 청송군수, "앞으로도 청송사과 경쟁력을 높이고 실질적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이 앞장서겠다"



청송군은 매년 반복되는 불철 냉해 및 서리 피해에 의한 결실 불량률 예방하기 위해 선제대응에 나섰다.

군은 현재까지 서리피해 예방에 가장 효과적으로 알려진 미세살수장치의 수요를 희망하는 전농가를 대상으로 군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전수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송군은 기존 FTA 기금사업으로 일부 추진하던 미세살수장치 지원사업이 1ha(약3천평)당 보조단가가 550만원으로 최근 몇 년간 상승한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제대로 반영하

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실제 시공 단가를 기준으로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 계획 단가는 현재보다 2배정도 상향한 1ha당 약 1천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요건으로는 지주시설을 갖추고 개별관정 등 충분한

한 용수량을 확보한 과원으로 수요조사(신청) 결과에 따라 사업비, 지원단가, 지원한도 등을 최종 결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접수는 8월 10일까지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미세살수장치 지원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냉해와 서리 피해를 해결해 과수 농가들의 걱정을 덜어줄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청송사과의 경쟁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에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영천 남부동 곳곳에 나라사랑 태극기 물결 퍼져

영천시 남부동에서는 17일 제헌절을 맞아 관내 주요 도로변, 남부동행정복지센터 입구, 봉동 상가 등에 태극기를 집중 게양하며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했다.

이번 태극기 달기 운동은 헌법 공포를 기입하고 국방 수도 정체성 확립 및 나라사랑 실천을 위해 실시했으며 동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봉동 상가 10여 개에도 일제히 태극기를 게양했다.

태극기 게양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이며 게양 위치는 밖에서 볼 때 주택 대문 또는 아파트 베란다 중앙이나 왼쪽에 달면 된다.

서성호 남부동장은 "제헌절을 맞아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라며 "앞으로도 태극기 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주민들의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남부동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부동은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의 일환으로 6월 중 관내 노후 가로기 꽃이대 900여 개소에 대해 부설 시설물은

철거하고 신규로 500여 개소의 안전하고 튼튼한 꽃이대로 교체하는 등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남부동의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한반식/기자



경상북도개발공사, 수해복구 성금 2천만원 전달

이재혁 사장, "이번 수해뿐 아니라 도내 발생 모든 재난-재해 적극 대응하겠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는 지난 17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한 성금 2,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경북지사)에 전달했다.

관련 금액은 수해복구에 활용될 예정이다.

경북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의 경우 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영주, 문경, 봉화 등의 경상북도 지역 역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이 밖에, 공사는 이번 수해와 관련,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대한적십자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재난키트를 배포할 예정이며, 재해현장에 임직원들을 파견하여 수해복구에 힘쓸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영덕군-대구한의대 세대통합지원센터, '영덕문화체험학기' 진행

- 외국인 유학생 36명 2박3일 간 영덕문화 체험

- 김광열 영덕군수, "방문을 환영하며, 군의 청정한 자연과 전통문화 망껏 즐기시길 바래"



영덕군은 영해면 이웃사촌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영덕군-대구한의대학교 세대통합지원센터에서 국제 의학대학교 간 협력체계 구축 및 로컬 협력사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영덕문화체험학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우즈베키스탄, 몽골, 베트남, 러시아 각 국가의 의과대학 유학생

들이 대구한의대학교에서 기초한의학과 임상한의학의 정규 교과수업을 수강하고 영덕군과 연계해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지역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대표 Nafisa Raymova는 "바다를 보기 쉽지 않은 나라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이번 대학 간, 지역 간 교류를 통해 영덕군

의 아름답고 깨끗한 바다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김광열 영덕군수는 "아름다운 우리 영덕군을 방문해주신 각국의 유학생 여러분을 환영하며, 우리 군의 청정한 자연과 전통문화를 마음껏 누리고 즐기시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장문화/기자

영주시 수해 현장, 군부대 지원 '잇 따라', 수해민에 큰힘

- 50사단, 2신속대응사단 210여 장병 복구활동에 '구슬땀'
- 박남서 영주시장, "영주시는 지원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돼도록 지원 및 편의 제공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혀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북 영주시에 군부대 긴급 복구지원이 잇따르며 수해민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육군 제50보병사단은 지난 15일부터 소속 장병 100여 명을 영주시 수해 피해지역에 투입해 복구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피해가 큰 장수면에 굴삭기 3대와 덤프트럭을 1대를 지원하며 주택 토사 제거, 도로개통 등에 힘을 쏟고 있다. 작업에 투입된 장병들은 무더위와 비가 내리는 악조건 속에서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복구활동에 임했다.

또,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은 장병 110여 명을 지난 16일부터 장수면, 안정면, 단산면, 상망동 등에 배치해 복구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병들은 지역별 피해 상황에 맞춰 주택 토사 제거, 배수로 정비, 범람지역 울막이 작업 등을 수행하며 신속한 피해복구로 수해민의 시름을 덜어주고 있다.

이진석 대대장(제2신속대응사단)은 "국민의 군대로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임무수행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다"며 "피해지역 주민의 일상이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군 장병 여러분의 수해복구 지원활동이 지역 곳곳에 펼쳐지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시에서도 지원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및 편의 제공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2신속대응사단, 제50보병사단 소속 장병들은 피해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지속해서 영주시 수해복구현장에서 긴급 복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한국수력원자력(주)과 상생협력 협약 체결!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 및 유치지역 발전을 위한

영양군은 한국수력원자력(주)과 7월 17일 한수원(주) 본사(경북 경주시)에서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 및 유치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2.-'36.)' 확정('23.1.11.)에 따라 신규 양수발전소 건립사업 신청 일환으로 사업 시행자인 한수원(주)과 예비 후보 지자체인 경북 영양군 및 경남 합천군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금일 협약식에는 오도창 영양군수를 비롯하여 황주호 한수원(주) 사장 및 김윤철 경남 합천군수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기관 간 상호협력 및 행정지원에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상생협력 협약서에는 ▲ 양수발전소 사업자 선정 추진 및 사업유치를 위한 노력 ▲ 사업자 선정 후 인허가 ▲ 이주민 지원 사업 ▲ 발전소 주변지역 상생 발전사업 등 향후 사업추진의 기반이 되는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영양군은 지난 4월 24일,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 예비후보지 선정을 시작으로 70여일 간 모범적인 민관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결의대회를 비롯한 서명운동 및 전군민 챌린지까지 범군민 유치활동을 펼쳐왔으며, 6월 30일 군민적 염원을 담아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신청서를 한수원(주)에 제출한 상황이다.

오도창 군수는 "먼저 양수발전소 건설 및 유치지역 발전 상생협력 협약 체결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황주호 사장님께 감사드리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우선 사업자 선정에 손꼽아 기다리며 한결같이 야심 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군민들과 범군민 유치위원회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며, "1만 6천 영양군민과 함께 향후 양수발전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규 양수발전소 우선 사업자 선정은 '발전사업 의향조사 공고(전력거래소)' 및 '우선순위 심의.결정(산업통상자원부)'을 거쳐 올해 9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보건·환경 전문분야 실무교육으로 청년취업지원 나서

2023 하절기 분석기기 마이스터 아카데미 교육 실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첨단분석기기 전문인력을 활용해 지역 내 이공계 대학생 취업경쟁력 강화와 과학 인재양성을 위해 7월 17일부터 2주간 '2023 하절기 보건·환경 분석기기 마이스터 아카데미'교육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가운데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처음으로 시작한 분석기기 마이스터 아카데미 교육과정은 지역 이공계 대학생들의 취업 및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실습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 형태로 운영된다.

매년 동절기와 하절기 방학 기간을 이용해 진행해왔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3년간 중단했다가 올해부터 다시 교육을 시작하게 됐다.

마이스터 아카데미는 2013년 1기 교육생 29명을 시작으로 15기까지 총 400여 명의 교육생이 수료했다.

이번 16기 교육과정에는 지역 내 3개 대학의 환경, 화학공학, 생명공학, 생명과학전공 대학생 8명이 입학해 대학원생 1:1 분석 실습 교육과 현장 중심 교육으로 진행된다.

또 교육생들의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분야별 이론교육과 기기활용 실습 교육을 진행하며, 관련 분야 취업 지원을 위한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해 연구원 연구관(사)이 직접 취업 멘토링 특강도 진행한다.

손창규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분석기기 마이스터 아카데미 교육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 교육과는 달리, 최신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활용한 특성화된 실무교육이다. 지역 대학생들에게 취업에 대한 동기부여와 전문성 제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학별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많은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윤경희 청송군수, 초등학교들과 특별한 만남

- 안전한 등굣길 만들어줘 감사하다는 학생들 편지 화답
- 윤경희 군수, "항상 군수실은 활짝 열려 있으니 찾아와 진솔한 이야기 들려주길"



윤경희 청송군수가 취임 1주년을 맞아 각계각층과 소통행정 및 공감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17일 청송 초등학교 학생들과의 특별한 만남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만남은 청송 초등학교 후문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공사에 대한 학생들의 감사편지에 윤경희 군수가 빼곡한 행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 갖게 된 것이다.

청송초등학교 학생들은 지난 4월부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인하여 학교 후문으로 등하교를 하고 있다. 후문 내리막길이 급경사로 이루어진데다 바닥이 미끄러워 학생들의 넘어짐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소식을 접한 윤경희 군수는 긴급히 미끄럼방지 포장과 차선규제봉 설치를 지시해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어 줬다. 청송초등학교 전교학생회장인 백민호 학생은 "등하교길을 안전하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군수님은 늘 바쁘신 분이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우리 어린이도 세세하게 챙겨주시는 친절한 마음을 알게 되었다"며 "윤경희 군수님이 청송에 계셔서 너무 든든하고 자랑스럽다"고 큰 애정을 표현했다.



윤근수기자

예천군, 집중호우 피해상황과 향후계획 설명 시간 가져

실종자 수색과 신속한 복구에 행정력 집중... "군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 안전문자등 재난안내에 귀 기울여 주시길"

예천군은 18일 오전 10시 예천군청에서 지난 13일부터 4일간 계속된 집중호우로 전역에서 발생한 피해현황을 군민들과 공유하고 향후 조치계획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김학동 예천군수는 "먼저 이번 호우로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하게 되어 송구스럽고, 참혹한 상황에 큰 슬픔을 억누를 수 없다"며, "용문.효자.은풍.감천면에 집중된 폭우로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해 18일 9시를 기준으로 사망 9명, 실종 8명이고, 현재도 실종자 수색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천군 전 지역에 전례 없이 쏟아진 비로 448명의 주민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했고, 예천군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임시거주시설에는 40명의 이재민이 머물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치 현황에 대해 김 군수는 "물폭탄이 남긴 주민 생활 곳곳의 피해 현황을 긴급 복구하는 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아직도 생사를 알 수 없는 실종자 수색과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공무원 2,335명, 경찰 625명, 소방 716명, 군부대 2,949명, 민간 1,450명 등 18일 누적 총계 8,075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로.제방 유실, 상·하수도시설 파손, 주택파손.매물, 축사파손, 정전.단수, 농경지 침수 등 사회기반시설과 전 분야에 응급 복구를 위해 420대의 장비를 투입했으나, 여전히 지속되는 호우로 피해 상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군에서는 실종자 수색과 구조를 최우선으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복구가 필요한 지역을 신속히 파악해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요청할 계획이다.

군은 안타깝게 인명피해를 당한 사망자 추모를 위해 17일부터 21일까지(1주일) 애도기간으로 정해 검은 리본을 착용과 함께 애도의 마음을 표하고, 이재민 관리와 시설응급복구, 자원봉사자 등 분야별로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지원과 복구에 전념해 나갈 예정이다.

김 군수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지만, 이제부터는 군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총동원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군민들께서도 이 모든 어려움을 거뜬히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도우며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군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므로 안전문자 등 재난안내에 귀를 기울여 위험징후 발견 시에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의성군, 2023년 상반기 신속집행 최우수기관 선정

의성군이 경상북도 2023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는 재정운용 효율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종합 예산집행 평가다.

군은 이번 수상에 대한 재정인센티브로, 경상북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 상반기 실적평가에서도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의성군은 5년 연속 경상북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노력을 인정받았다.

의성군은 2023년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 3,817억원 중 2,625억원을 집행하여 68.87%의 집행률을 달성했다. 소비투자 분야에서는 침체된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자 당초목표 1,328억원 대비 1,865억원을 집행해 537억을 초과 집행했다. 이는 경기 파급 효과가 큰 소비·투자 부문 집행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군 재정집행을 위해 애써준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하반기에도 군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임종식 경북교육감, 집중호우 피해 학교 현장 점검

- 학생안전을 최우선으로 피해 복구에 전력

- 임종식 교육감, "추가 피해 발생지 않도록 예방 철저, 피해 발생 현장 위생점검 및 방역 활동 만전" 당부



▲산북초등학교 현장점검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지난 17일(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문경 지역 학교를 방문해 학생 안전과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폭우로 피해를 본 문경시 소재의 산북초, 모전초, 문창고를 방문해 위험지역 출입통제 및 잔해물 제거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지역의 학부모 및 학교 운영위원과 만난 자리에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를 투입하는 등 학생들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걱정 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의 공무원들에게도 국민의



▲모전초등학교 현장점검

봉사자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범적인 자세를 갖추어 줄 것을 지시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피해 현장에서 "아직 장마전선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피해가 발생한 현장은 위생점검 및 방역 활동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경북교육청, 전국 최초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입학'에 큰 기대 가져

지역을 품고 세계로 가는 경북 직업교육

경북교육청은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의 입학 추진을 위해 오는 22일(토)부터 29일(토)까지 해외 현지를 방문해 태국의 교육부와 방콕교육청, 베트남 하노이 교육청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경북은 의성군 외 15곳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돼, 지역 소멸 등 새로운 사회 위험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2023년 핵심 추진 과제 '해외 우수 유학생의 입학'을 추진해 직업계고의 신입생 충원을 하려고 산업 기술인력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경북교육청은 글로벌 시대 산업 수요에 맞춘 일자리 발굴과 체계적인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난 2010년부터 10여 개국에 1,210명의 직업계고 학생을 해외 파견하는 등 글로벌 취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 오랜 노하우와 체계적 교육시스템, 인적자원 확보를 기반으로 한 경북의 직업교육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협력 체제 구축을 희망하는 여러 나라에서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 하와이와 베트남 교육관계자가 도내 직업계고등학교를 방문해 글로벌 취업의 성공적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과정 협력 및 교류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바 있고, 2024학년도 해외 우수 유학생 입학을 위한 사전 현지 조사 결과 인도네시아, 몽골 등 ASEAN 국가 유학생이 입학할 수 있도록, 특히 태국, 베트남 등의 현지 교육기관은 지난 3월과 6월 방한해 ▲유학생 선발 및 전형 방법 ▲직업계고 교육과정 운영 ▲직업계고 교육 시설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이해 교육 등 유학과 직업교육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해외 우수 유학생 경북 직업계고 입학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결과 2024학년도 고교입학 전형에서 8개 학교가 해외 4개



국에서 56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정원 내외로 선발하게 된다.

외국인 유학생은 교육과정, 교육비 부담, 학생생활규정 등 국내 학생과 동일한 적용을 받으며, 경북 직업계고의 우수한 교육과정 이수과 자격취득, 3년간의 학교 생활을 통해 양질의 해외 인재로 양성해 산업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자 한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유학생이 D-4-3의 일반연수비자로는 졸업은 가능하나 국내 취업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직업계고의 해외 우수 유학생 입학' → 해외 우수 유학생의 지역사회 취업과 거주 → 지역사회 인구 증가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향후 법무부, 경북도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비자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해외 유학생들이 한국어, 전공 직무 기술 습득, 지역 인재로 정착하도록 취업비자 발급 등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지역 구인난 해소/지역 정착으로 지방 인구소멸문제 해소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고양교육지원청, Chat GPT 시대 학부모 역량 강화 연수

학교 교육 지원 및 협력, 그리고 자녀를 위한 준비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7월 17일 관내 학부모 200여 명을 대상으로 『Chat GPT 시대의 미래 교육 연수』를 개최했다. 이날 연수는 KT 전부구 과장(전문강사)의 Chat GPT 시대의 사회변화 연수가 진행됐으며, 이어서 초등교육지원과 박영진 장학사의 고양 미래 교육에 관한 연수가 진행됐다.

이번 연수는 Ghat GPT 시대 변화 이해와 함께,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적 사고, 문제 해결역량, 대인관계와 협업 능력 등을 위한 교실 수업 방법의 변화와 방향성을 다루었다. 스마트 기기 보급으로 학교 수업의 변화 풍경을 제시하며, 에듀테크가 학습을 촉진하는 도구로서 활용됨을 안내했다.

연수에 참석한 OO초 학부모 OOO는 "연수를 통해 Chat GPT의 이해와 함께 에듀테크 기반 수업,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별 맞춤형 학습 진단 등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교 교육 변화를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고양교육지원청 고효순 교육장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 교육의 변화를 학부모님들이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전했으며, "이번 연수를 통해 학부모들이 자녀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학교 교육을 이해하고 지원, 협력하는 조력자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영양교육지원청, 2023 『콘텐츠 학교』운영으로 미래 디지털 창의·인성 역량 강화 지원

- 김유희 영양교육장,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확산, 각자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창의·인성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은 지난 14일(금), 관내 초·중학교 3개 학급 대상, 학교로 찾아가는 『2023 콘텐츠 학교』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디지털 창의·인성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했다고 밝혔다.

콘텐츠 학교는 경북콘텐츠코리아랩(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과 연계하여 지역 내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평소 쉽게 접하지 못하는 트렌디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다양한 스토리를 기반으로 학생 각자가 창의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디지털 창의·융합 교육프로그램이다.

교육 내용으로는 3D/이모티콘 디자인, 유튜브, 숏폼 크리에이터, 메타버스, UX/UI 등 유망 디지털 콘텐츠 분야 중 학교와 학생의 선택에 따라 '콘텐츠 클래스'와 '웹툰 클래스'를 실시했다. 학생들은 폰트클래스를 통해 다양한 활용 기법을 활용하여 우리 학교와 지역을 홍보하는 영상물을 제작·발표하였으며 웹툰 클래스를 통해 나만의 스토리보드를 기획하고 그래픽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웹툰을 제작하는 경험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영양중 OOO학생은 "영양에서 쉽게 배울 수 없는 폰트버와 웹툰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친구들과 함께 만든 학교 홍보 영상을 보니 뿌듯했다."고 했으며 석보초 교사 OOO는 "앞으로 학생들이 콘텐츠 기술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삶에서 유익하게 사용될 것으로 여겨진다."고 했다.

영양교육지원청 김유희 교육장은 "우리 지역의 특색있는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 미디어, 메타버스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다. 또한 콘텐츠 꿈나무인 미래세대에 활력을 불어넣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및 확산하여 각자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창의·인성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북부교육지원청, 업무 경감용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직원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한 부산북부교육지원청의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은 교직원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 6종을 개발하고, 이를 다른 교육지원청과 공유한다고 18일 밝혔다.

부산북부교육지원청은 청 내 직원과 교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직원들이 다양한 업무를 자동화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개발한 프로그램은 ▲인터넷 통신비 지원 대상자 개인정보 암호화 ▲초등교사 휴·복직 인사발령 카드 생성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학교용 배부자료 생성 ▲초·중학교 중기 학생 배치 관련 보고서 생성 자동화(2종) ▲입찰 공고 자동 생성

등 6종이다.

북부교육지원청은 이 프로그램 공유를 위해 7월 19일 오후 3시 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다른 교육지원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총괄한 서명호 팀장은 "프로그램이 현장의 업무 처리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프로그램 사용 중 불편한 점이 발생하면 수시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안선숙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우리 교육지원청은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 처리 방식을 개선하는 데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에게 더 나은 업무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종진/기자

어머님들장흥

제16회 정남진 장흥물축제

7.29(토)~8.6(일) / 9일간
탐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

은 세상을 물로 적셔라! 장흥에 빠져라!

문화관광축제

VISIT KOREA YEAR

섬이 그리는 대한민국

제4회

섬의 날

in 울릉도

울릉 최초의 국가 행사

2023. 8. 8. (화) ~ 8. 11. (금)

* 기념식 장소 : 사동항, 19:00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울릉군